



부안 하서 문수마을故김금례씨, 장학금 300만원 기탁

부안군은 2025년 하서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에서 뜻깊은 장학금 기부가 이루어졌다.

하서면 문수마을故김금례(향년 88) 고인의 후손들은 고인을 대신하여 장학금 기부 증서를 친동서 박선녀와 손자 송진우가 받았다.

평생을 무학자(無學者)로 살아온 고인은 살아생전 누군가 돈이 없어 배우지 못했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본인의 일처럼 가슴 아파해, 평생을 일궈온 본인 소유 토지 200여평을 매매금 중 300만원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후학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본인의 장례를 치러줄 것을 부탁했다.

권익연 근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어 감사하고 고인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장학금을 값지게,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 노암동 지사협,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미화·엄창길)는 지난 13일,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해 동 지정기탁금 모금 현황 보고와 올해 추진할 특화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특화사업으로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홀몸 어르신 생신 파티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 △우리 동네 정이 가득한 반찬 지원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계절 이웃사랑 행복반상 △남원시사회복지관과 함께 행복 나누미 등의 사업을 결정했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진안군 백운면 지사협, 1차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는 14일 백운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마을복지계획의 세부 사업을 수립하는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2024년도 추진된 사업의 주요성과 및 종합평가를 통해 마을복지 사업을 재정립하고 2025년도에 추진될 마을복지계획 사업의 세부 계획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25년 마을복지계획 중점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백운면 동네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곤 위원장은 “오늘 제5기 백운면 협의체가 신규위원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백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마을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자”고 말했다. /진안=유태만기자



유화건재, 무주군에 라면 370박스 기탁

무주군 무주읍 소재 유화건재에서 지난 14일 무주군에 라면 370박스(582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중 사장은 “한과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라며 “라면이 한 끼 식사를 넘어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나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화건재는 김정중 사장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철물, 소방 건축 생활용품 등을 판매업체로 지난해에도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 전달’

최경식 남원시장, 노인복지시설서 배식 봉사 나서

남원시 관계자는 최경식 시장이 지난 2월 14일,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접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2월 10일 경로식당의 정식 운영이 시작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최 시장은 이번 배식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을 드신 한 어르신은 “시장님이 직접 식사를 나눠주시니 정말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미소를 지으며, 제공되는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가 있다”라고 칭찬했다.

남원시는 이번 봉사 등과 같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최 시장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활



에 관한 관심을 더욱 기울였다는 뜻을 밝히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은 물론,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불 제로 도전’ … 정읍시, 산불감시원·진화대 발대식

정읍시가 봄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해 감시원과 진화대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13일 연지아트홀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145명의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본청과 읍·면·동 산불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각종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영농 준비 시기인 봄철에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읍시에는 읍·면·동 감시원 74명과 진화대 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평상시 논·밭두렁 무단 소각 감시와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

특히, 시는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해 5월 14일까지 고춧데, 갯데 등 영농부산물 파쇄 작



업을 진행하며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한편 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주요 산불 취약 지역 산 정상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산불진화차 등 장비 점검을 마쳤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대·목원대 사범대학, 선도적 교원 양성 모델 구축 협약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13일 목원대학교 사범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마병 학장과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전영주 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목원대학교 이희화 총장이 참석해 전주대학교 관계자들을 환영했다.

이 협약은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과 선도적 교원 양성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입·전북의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실행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에 대한 상시적 협의 △학생들의 수강 교류 및 특강 강사 교류를 통한 교원양성 협력체계 도모 등이다.

협약에 앞서 전주대·목원대·공주교대·대구가교대 관계자들이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지역 협의체 거버넌스 구축과 융복합 자율전공선택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마병 학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과 선도적 교원양성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예비 교사를 양성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반딧불복분자영농조합,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인재 육성을 위한 마음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4일 무주반딧불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병주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법인이 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농업 발전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설립된 무주반딧불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는 복분자 재배를 비롯해 가공, 유통 연구를 통한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무주군교육발전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하이술, 남원 내 소외계층에 화장품 전달

남원시는 관내 (주)하이술(대표 박이경)에서 총 330만원 상당의 자사 화장품인 미스트, 바디워시, 바디로션으로 구성된 세트를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고립 청장년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주)하이술은 남원 지리산 허브특구에 위치한 친환경 화장품·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지리산 천연물을 직접 생산한 원료로 화장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통동지사협, 맞춤형복지 실천 특화사업 추진

남원시 동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김희만)은 올해에도 지역사회 맞춤형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동통동 사랑 나눔 1인 1계좌 갖기, 사랑 듬뿍 찬찬찬(饌饌饌)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삼계탕 지원사업 등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 협약을 통해 매월 정기기부자 140명(200여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 1인 1계좌 갖기” 사업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

후원받은 기부금(1천만원)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17가구를 협의체 위원들이 매월 2회 가정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밀반찬 나눔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관내 삼삼면(대표 왕흥석)에서 밀반찬뿐만 아니라 뜨끈뜨끈한 국물까지 준비해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 어르신은 “정성껏 마련한 반찬에 따뜻한 국을 받으니 고맙고 행복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지어냈다.

한편 소선자 동통동장은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온정 넘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고창소방서, 국민참여 화재 대피훈련 진행

고창소방서는 최근 황토배기 고구마연합회에서 ‘현직적응 및 국민참여 화재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역주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참여하여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피 절차를 익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소방관들은 대피 경로와 책임 임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통해 대처 능력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고창소방서는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대피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창소방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진웅 현장대응단장은 “정기적인 훈련과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군 산림조합, 천천면에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3일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은 천천면 하늘내 행복나눔터 2층에서 진행됐으며 이현원 천천면장, 최민식 민간위원장 그리고 산림조합 직원 3명이 참석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현원 면장은 “천천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리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광호 기자